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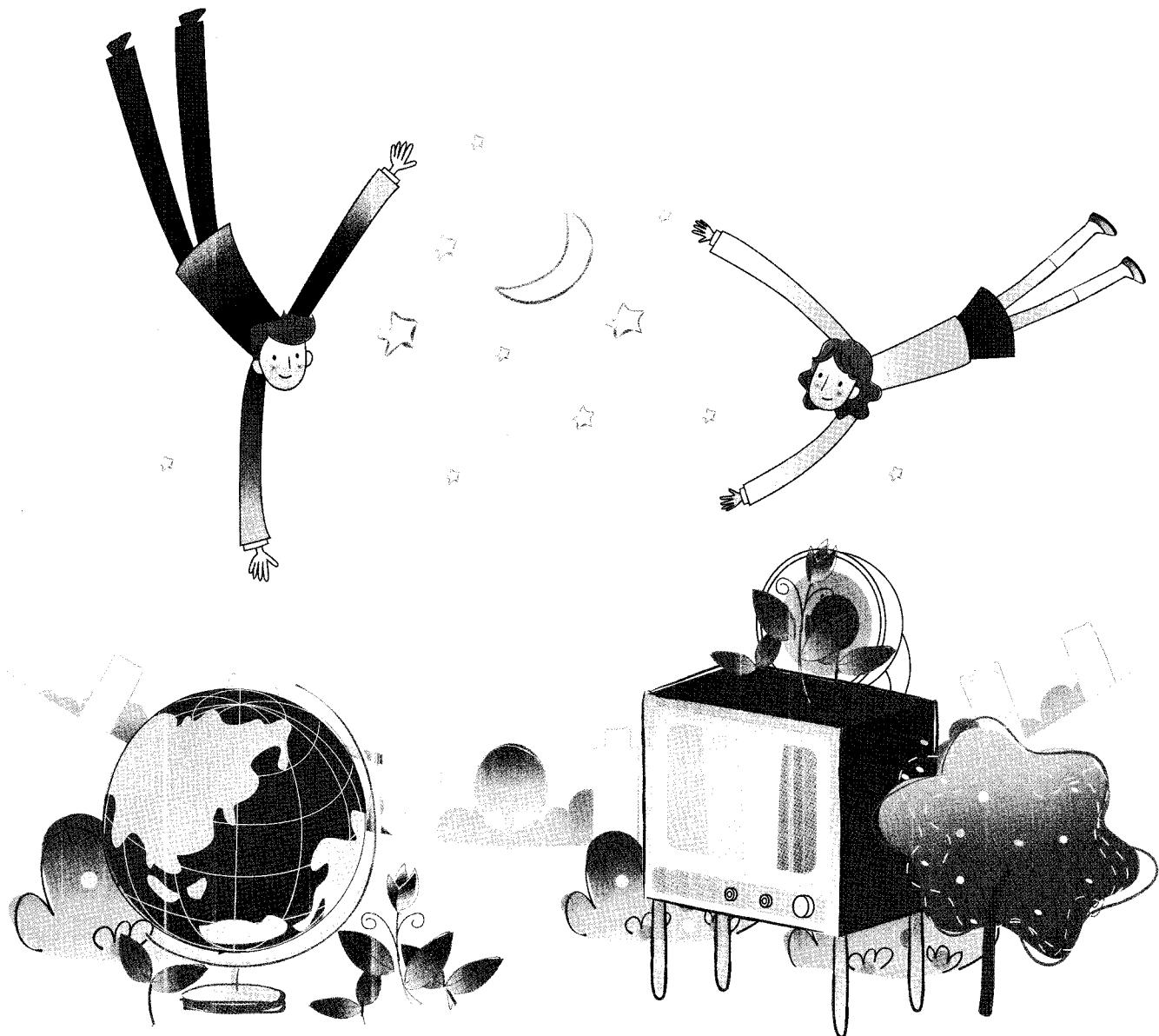
Theme _ 일자리 나누기 열풍

중 기 단 체 에 불 고 있 는 일 자 리 나 누 기 열 풍

‘일자리 나누기는 고통분담 아닌 희망 나누기’

최근 중소기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중기단체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업종교류회 등 중기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나누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글_ 송현호



● 벤처기업협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팔걷다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벤처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었다. 벤처협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7가지. 대학생취업성공컨설팅, 벤처기업취업성공스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인력채용패키지, 기업맞춤형인력매칭사업, Korea Venture Scholarship사업, 온라인 채용 네트워크서비스사업 등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취업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인건비의 50%를 제공함으로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800개사 1,321명 규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맞춤형 인력매칭사업은 경력자의 취업을 돋기 위한 것으로 경력직 취업자와 벤처기업을 매칭하여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준다. 이 사업에는 100개 기업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인력채용패키지사업은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웹 디자인과 전산세무 2개 직종에 대해 협회와 참여기업이 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협회는 선발된 인력에 대해 3개월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 규모는 80개사 100명이다.

Korea Venture Scholarship사업은 IT, BT, NT 등 R&D기반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과 학위수준, 세부전공 등을 조사하여 이들과 벤처기업 간 취업상담을 통해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55명이다.

온라인채용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수 인력들이 유망 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업과 구직자 간의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돋는다. 지원규모는 200명 수준.

이외에 대학생 취업성공 컨설팅은 수도권 대학 6개, 수도권 여자대학 2개, 지방대학 1곳을 선정 성공벤처 CEO 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한다.

벤처기업 취업성공스쿨은 벤처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 가능한 대학생을 사전 선발하여 5박 6일동안 집체교육을 실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매칭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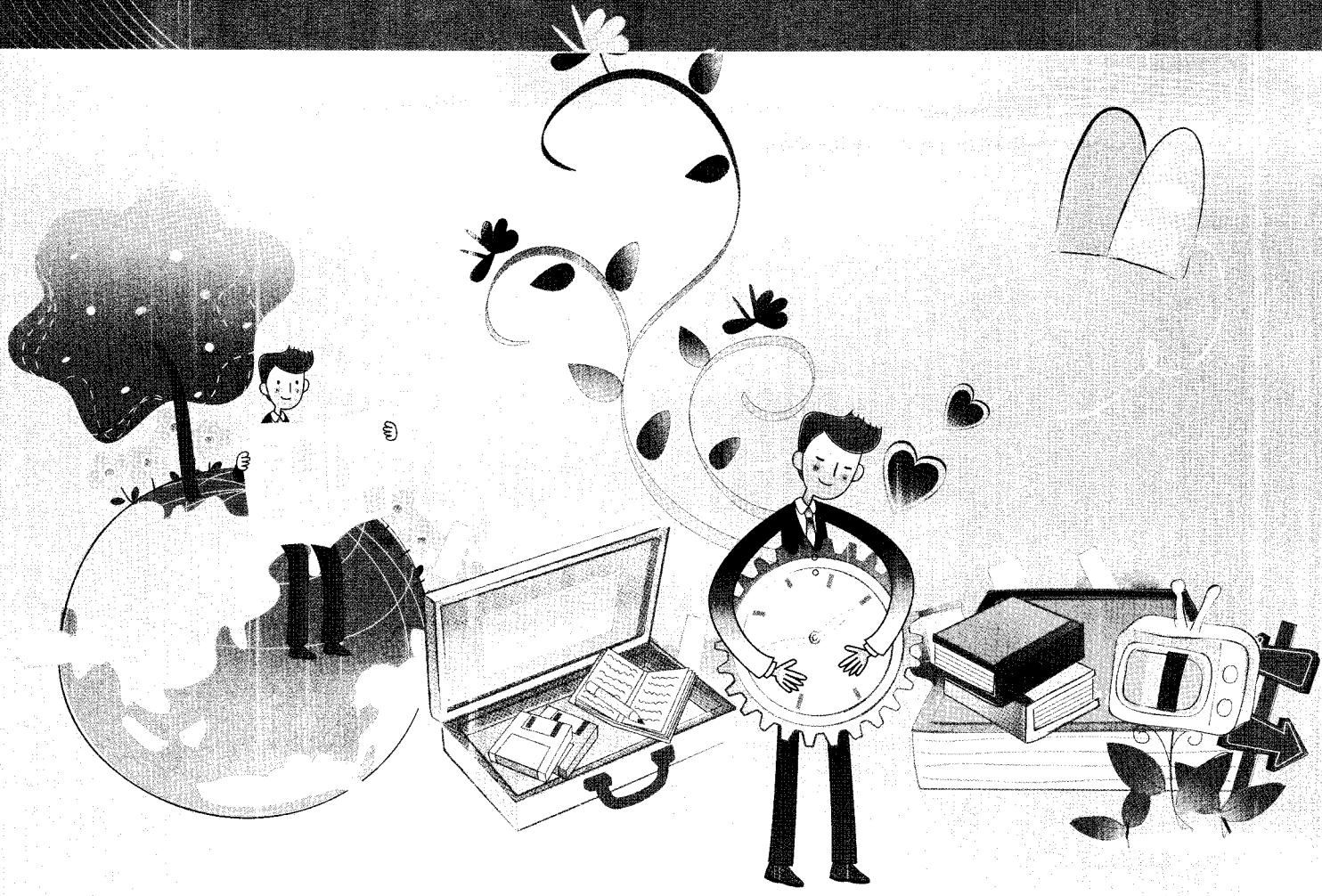
잡 쉐어링센터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고용위기 극복과 대량실업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지난 2월 임금삭감 등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회에서 먼저 팔을 걷어 붙였다.

먼저 중앙회 임원 10%, 부서장 5%씩 임금을 반납키로 한 것. 또한 신입직원들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내년 신입직원 채용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앙회가 추진하는 고용위기극복 방안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잡 쉐어링센터 운영이다. 3월부터 고용분담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해 오픈한 잡 쉐어링센터에서는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해준다. 아직 국내 중소기업들이 잡 쉐어링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만큼 관련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잡 쉐어링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 시켜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잡 쉐어링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잡 쉐어링에 대한 안내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잡 쉐어링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도 해준다. 이외에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1인1사 고용운동도 펼치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1인1사 채용운동 펼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1인1사 채용운동이다.

이 운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 1,8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과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중소기업일자리 박람회 등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협회는 청년인턴제사업 참여기관 가운데 최대인 1,80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인원이 초과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연수생을 선별하여 실무적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도 지난해 180명보다 많은 220명의 중소기업인력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0개 이노비즈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일자리 박람회' (9월 개최예정)에서 이노비즈관을 별도로 개설하여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홍보하고 이들이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승호 회장은 "지금은 인턴으로 근무하지만 청년인턴제를 통해 자신을 목표를 재정립하고 조직 생활을 통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미리 익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이노비즈기업들이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중기청의 위탁을 받아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업종을 대상으로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과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이 사업을 위해 여성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고수익의 소상공인업종,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분석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협회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이스테이션 창업과정, 온라인쇼핑몰 창업, 파티플래너, 패션점포, 칠보공예, MD마스터, 인터넷마케팅관리사취업과정 등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이나 미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각 과정별 25명, 교육시간은 80시간내외이다. 교육내용은 사업계획서작성요령 등 기초 교육을 비롯하여 전문실습교육, 현장학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이업종교류연합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마련에 앞장 서고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전국 500여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1,50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예비취업자의 취업분야를 지원해주는 취업 컨설팅관을 비롯하여 이 력서 작성률 높은 취업지원관, 영어면접체험관, 취업전략특강 등 별도의 코너를 마련했다. 이상연 이업종교류연합회 회장은 “이런 채용박람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채용박람회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사회진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두세요

‘일자리 나누기 정부지원제도’

하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이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

정부는 1개월 단위기간동안 사업장의 휴업 규모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또, 고용유지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 무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시설,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50% 이상을 전환업종에 배치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휴업과 휴직은 180일,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부터 1년간 지원된다.

둘, 임금삭감으로 고용유지 시 삭감액의 50% 과세소득공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직원들을 임금을 삭감하여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셋, 임금삭감으로 일자리 유지 시 국민연금 납부기준 변경

근로자 동의로 20% 이상 임금 삭감 시 국민연금 납부기준을 전년도 소득에서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줄여준다.